

하이에나 戰士



홍 호 표 < 본회 연구원 >

‘하이에나(Hyena)’.

국어사전에서 이 동물을 찾아보면 ‘포유류 하이에나과의 총칭. 개와 비슷하나 계통적으로는 고양이에 가깝고 앞다리가 길고 어깨에 갈기가 있음. 야행성으로 성질이 사납고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음. 아프리카·인도에 살며, 줄무늬가 있는 줄무늬하이에나와 얼룩점박이하이에나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이에나가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은 짐승으로 알려진 것은 게으르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인기 프로 ‘동물의 세계’에 비친 하이에나는 먹이의 80%를 사냥으로 해결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짐승이 잡은 먹이를 빼앗아먹거나 죽은 동물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맹수는 죽은 동물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자도 먹이가 부족하면 죽은 동물을 탐한다고 하니 하이에나만 치사한 동물로 여기기에는 억지가 있다고 한다.

하이에나는 사자나 호랑이류에 비해 갖춘 것이 없다. 스피드, 억센 발톱, 일격에 다른 동물을 잠재우는 파괴력이 약하다. 게다가 뒷다리가 짧아서 어색한 뽀박질을 하므로 약한 동물에게는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또 나무에 기어오르지 못해 잡은 동물을 가지고 나무로 올라가 혼자 먹지 못하는 신세여서 잡은 먹이를 현장에서 먹어치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심많은 동물로 여겨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협동심과 지구력 동물 중 뛰어나

하이에는 협동심이 강하므로 잡은 먹이를 독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이에나가 먹이를 잡으면 그의 동료들이 몰려 갈라먹는다. 위계질서가 있는 하이에는 새끼들에게까지도 먹이를 공평하게 배분한다.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에 비해 나은 것이 있다면 턱힘이다. 이들은 동물의 뼈까지도 철저히 으깨먹어서 배설물에 동물의 뼈가 섞여나온다고. 이 동물의 뼈는 독수리의 생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분이어서 하이에나와 독수리는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한다.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전체를 먹지 못하므로 먹이의 위치를 하이에나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이렇듯 하이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에 버금가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에 교환 주는 하이에나

일류대학을 나온 엘리트를 사자나 호랑이에 비할 때 그렇지 못한 이를 하이에나에 비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까. 나라의 외환이 바닥나서 IMF의 지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게으른 맹수보다는 협동심이 있는 하이에나가 낫다고도 할 수 있다. 맹수는 자기 힘만 믿고 남을 무시하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

기회를 포착하면 성취를 위해 종족이 전력투구한다. 요즘 기업들은 불황으로 인해 맹수에게도 하이에나같이 회사생활을 하라고 한다. 즉 임원의 급여를 줄이고 많은 혜택을 없애는 판국이니 하이에나가 과거와는 달리 보일 수 밖에 없으리라.

각 방송사의 동물 프로를 보면 하이에나가 거의 매일 등장한다. 사자가 먹이를 쫓거나 잡아놓으면 어김없이 등장하여 '못먹는 감 썰러나 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맹수에게도 하이에나의 습성을 배우라고 할 날도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에나전사가 나올 듯 싶다.

지구의 인구가 40년전에 비해 배가 늘었으므로 맹수의 유유자적은 21세기에 는 더이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